

인식과 관심도가 크게 달라져,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의 원인을 조기발견하여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강진단의 결과가 의외로 발병율의 증가와 각종질환의 발견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.

대상 및 방법 :

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1991년 1월~1993년 12월말까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검사자 43,648명을 대상으로 X-선 흉부촬영에서 사진상의 폐암(폐암의심), 폐결핵, 기타질환이 나타난 유소견자를 연령별, 질병별로 분류하였다.

결과 :

검사자 43,648명(남 : 27,068, 여 : 16,580) 중 유소견자 509명(평균 1.16 %) 즉, 남자는 1.35 %, 여자가 0.86 %를 보였다. 연령별로는 20대 1.4 %, 30대 1.14 %, 40대 1.13 %, 50대 1.07 %, 60대 1.51 %, 70대 1.48 %으로 나타났다. 폐암 의심자는 18명이 나타났으며 활동성 폐결핵은 0.61 % 매년 감소 추세인데 비해 특히, 20대에서는 0.93 % 매우 높게 나왔으며 폐결핵에서 남자 0.74 %, 여자 0.41 %로 남자가 배에 가까운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.

결론 :

본 통계는 계층간, 지역간을 배제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며 결론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발병율과 특히, 20대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발생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종합건강진단의 활성화와 중요성이 한층 입증되었다.

<14>

**한국내 방사선 검사의 28년간
변화 동향 분석**

전성준* · 김건중
국립경찰병원 방사선과
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

목적 :

앞으로 방사선 검사의 방향 등을 예측해 보고, 신설병원 방사선과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동향 분석을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

종합병원 방사선과 통계를 대상으로 하였고, 각각의 검사를 A. B. C. D 그룹으로 분류하고 통계처리 하였으며 방사선과 외적인 인자의 영향도 파악하였다.

결과 :

연도별 검사의 증가율은 기복이 심하였고(-, 7%~47%) 15% 이상의 증가는 약 3~4년 주기로 나타났다. 또한 연간 총검사의 변화양상은 A, B 그룹이 C, D 그룹의 출현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.

결론 :

- 1) 약 3~4년 주기로 15%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.
- 2) 개원 후 방사선과 검사가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3~4년이 소요되고 있었다.
- 3) 방사선과 검사의 증가 주도 그룹은 A 그룹으로 나타났다.
- 4) 80년대 후반기까지 A그룹의 점유율은 80% 이상이었으나 1987년을 기준으로 80% 이하로 감소하여 점진적 하향이 예상되고 유망 검사는 예외적으로 상향세로 보였다.

<15>

**재촬영 필름 토론회 실시
전후에 발생한 재촬영 필름
발생빈도의 차이**

이유종* · 김보근 · 이상일 · 전성백
이우택 · 박상귀 · 박기우
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

목적 :

1993년 5월 본원 신축 개원 후에 발생한 모든 재촬영 필름을 대상으로 하고, 재촬영 필름 원인 분석 토론회를 실시하므로써 재촬영 건수